

“아직도
建築文化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요.”



/출생지/ 서울 종로구 청운동55번지 /학력/ 동경 조도
전대학 高工建築科졸업 / 주요경력 / □ 漢陽工大강사 □
건축학회이사 □ 梨大·大法院강사 □ 弘益大校교수 □
국전초대작가 □ 국전종합십사위원장 □ 건설부주택자
문위원 □ 서울시행정(기술) 자문위원 및 재개발위원□
U·I·A 4 지역회의참석 / 受賞경력 / 錫塔산업훈장 및 다
수 / 주 요작품 / 공군본부·企業銀行본점·남서울컨트리
·크립하우스·선화예술학교 및 강당·세종문화회관·대
한교육보험사옥·호텔롯데 및 백화점·통일교문화 센터
(미착공)·제2 종합청사(공사중)

◎ 対談 / 尹 鳳 源 < 본지 편집위원 >

□ 「오존」이 풍부한 山中….

벽면을 장식하고 있는 대형 항공사진과 곳곳에 놓여있
는 대규모 모형판에 들어선 白堊의 작은 집들이 굽이돌아
흐르는 검푸른 강물과 푸른 산 빛 속에서 그대로 살아있
다.

그 색깔들로 해서인가-, 들어선 사무실은 「오존」이 풍
부한 깊은 山中에 와 있는 느낌이었다.

그 山中(?)에 살면서 허허로운듯 혹은 그냥 그런대로
사는듯, 그러나 늘 끊임없이 자연을 사랑하고 그 질서를
가다듬고, 터득하고, 다스리는 山主人 嚴德紋씨-

정리하기엔 너무 벅차고 놓아두기엔 안타까운 세월의 찌
꺼기를 틈틈히 떨어버리는 순박한 어투에서 元老라기보다
는 행동하는 젊은이의 기백마저도 엿보인다.

헤어져 돌아서는 객(客)들을 약속대신 문밖까지 배웅하
는 한국인 원로건축사 嚴德紋씨.

□ “하다못해 流行歌도 작사작곡가 이름을 밝히는데
종합예술작품인 건축물엔 누구작품인지 이름 한 줄
못넣게 하니…”

□ 윤 오랜동안 건축계에서 활동하셨는데 그동안의 얘
기, 다시 말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래서 되겠는가 하는
내용 뭐 그런 말씀 좀 해주시죠. 선생님 말씀을 들어야
후배들도 도움이 될테니까요.

□ 엄 그런 얘기라면 대개 두가지로 집약되겠는데, 하
나는 내 자신에 관한것과 또 하나는 사회 혹은 주변에 대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다른 분야에 비해 건축은 푸대접을 받
아왔습니다. 한가지 예입니다만, 부산 피난시절에 文化
人 등록을 하라고 해서 찾아갔더니 뭘하는 사람이냐고 묻
길래 건축을 한다고 했더니 당신이 무슨 文化人이냐고 대
뜸 반문을 합니다. 그래서 문전에서 싸운 일도 있습니다.
미쟁이, 목수에 지나지 않는다는거죠.(웃음).

이런 인식이 최근에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것도 상
당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에 까지 있다 이겁니다. 얼마전
에 우리나라 최고의 문화인들이 모인다는 문화진흥원 개
관식엘 오라고 해서 갔더니 그 회관을 누가 설계해서 지
은건지 정초석에 새겨놓지 않은 것은 고사하고 말한마디
없어요. 매스컴에서도 그것에는 전혀 무관심해요.

하다못해 유행가에도 누가 작사하고 작곡했는지를 꼭
알려주는데…, 이래서야 건축한 보람이 있었습니까? 어
떤 회의 같은걸 느끼게 되더군요.

國展에서도 建築은 다루지 않았었죠. 그걸 제가 주장
해서 넣게 된겁니다. 회화만 美術이 아니다. 조각, 건축
이런것이 모두 미술영역에 들어가는걸 모르는지…, 넌센
스죠. 우스운 얘긴다만, 그래서 우리 자식놈이 건축가

□ “근년에 들어 수준급의 작품이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최소한 후세에 부끄럽지는 않을 것으로…”

되겠다는걸 말렸습니다. 이런 풍토에서 올바른 작품활동이 되겠습니까?

□ 윤 제가 느낀것도 바로 그런겁니다. 예를 들자면 방송을 11년째 하고 있는데 담당 PD가 건축사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대담을 나눌때 건축설계사, 또는 건축설계자라고 해요. (웃음) 한데, 이런 풍토가 되는데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 스스로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되요. 정립이 안됐다고 할까요. 우리의 단체를 중심으로해서 권익보호내지 홍보활동등이 폭넓게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봅니다.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해야 하니까요.

□ “문화, 문화하면서 건축문화는 왜 그렇게 모르는지…”

□ 엄 네,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죠. 많은 년센스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년센스 속에서 살고 있는것 같아요. 文化, 文化하면서 건축문화는 왜 그렇게 모르는지…

□ 윤 작은것부터 우리 스스로가 고쳐나가면 머지않아 地位向上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특히 협회를 통해 공동보조를 취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되리라 믿고, 또 선배분들이 앞장서면 후진들에게 큰 힘이 될줄 압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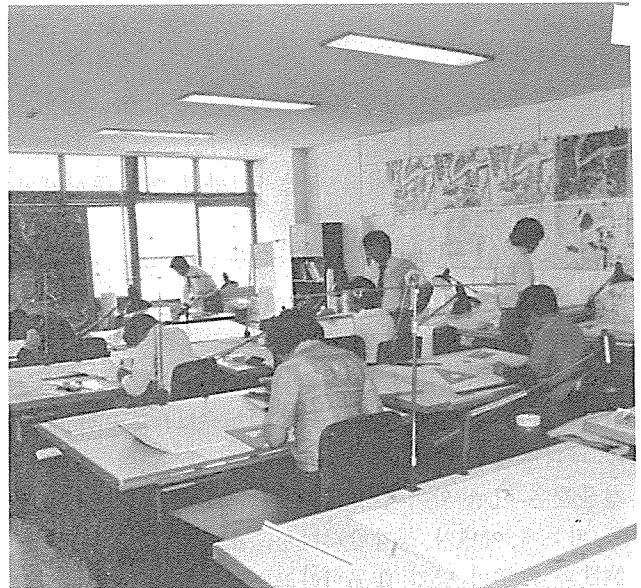
□ 엄 그렇죠. 힘을 합쳐야죠.

□ 윤 문화적인 측면에서 건축계의 현황, 다시 말해서 도시가 콘크리트로 뒤덮혔다고 악평도 하는데 未來의 건축문화는 건축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엄 저는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는 안 봐요. 적어도 우리 후손들에게 얼굴을 못들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수준급의 작품이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4, 5년전 부터 좋은 작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건축사들이 나오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예전에는 없었느냐하면 그런건 아니죠. 신라, 고구려, 백제 때도 역시 훌륭한 선조들이 멋있는 건축물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해방이후 요직전 까지 왜 공백기간 있었느냐하면 그건 경제적인 원인 때문입니다.

건축문화는 정치, 종교, 기후, 풍토에 따라 영향을 받지만 그중에서도 경제적인 영향을 가장 크게 받습니다. 그당시 우리나라 GNP가 얼마였습니까? 불과 몇불 안됐잖아요. 그러니 좋은 집 지을 엄두내겠습니까. 그러나 최근 부터는 달라졌다 이겁니다. GNP가 높잖아요. 그런데 한가지 문제가 있더군요. 건축가는 설득력이 있어야겠어요. 건축주는 땅이 생긴대로 다 채우려고 해요. 그러니



좋은 작품을 만들려면 싸우고, 설득하고 해야 되더군요. 힘들죠.

□ 윤 네, 전 그런것을 民度라고 봤습니다. 민도가 낮으면 제아무리 돈이 많아도 별수없죠. 좋은 예로 브라질 수도를 건설할 때 건축가가 대통령을 설득해서 훌륭한 신생수도를 만들어 냈지만 국민들이 민도가 낮아 이사를 안가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더군요.

□ 엄 그래요. 그래도 돈이라도 있으면 훨씬 수월하죠. 그런데 돈도없고 민도도 낮으면 건축가가 좋은 작품하진 무척 어려워요. 선진국들도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스케일이 작다는 겁니다. 워낙 땅덩이가 좁아서도 그렇겠지만… 造景이라는 것을 전혀 무시하려고 들어요. 물론 「건물+조경」이면 1백프로지만 형편상 그럴수는 없고 주어진 여건속에서의 조경마저도 어렵다는 겁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조명을 비추고 멋있는 쇼 케이스에다 진열하면 훨씬 좋아 보이잖아요. 나무하나를 심어도 분위기에 맞는 나무를 심을 줄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게 안돼요.

□ 윤 그런점은 도시건축물에만 국한된건 아닌것 같아요. 조경이라는 측면에서 볼때 농촌형주택이라는 것 말인데요. 영 예전의 농촌이 아니더군요. 전문 건축가의 그것은 아니라고…

□ 엄 네 바로 보셨습니다. 그런 농촌주택이 세워질 수 있다는것 부터가 년센스입니다. 건축은 건축가에게 맡겨야되고 학자는 학문을 해야죠. 국가 건축분야를 학자

□ “造景을 전혀 무시해요. 농촌형 주택이란거, 정책부재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은 건축가에게 맡겨야죠…”

에게 맡겨서야 되겠습니까? 건축가가 당연히 맡아야죠. 사양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건축정책의 不在라고 생각합니다.

□ 윤 앞으로의 건설정책은 시행착오가 없어야 하겠지요. 선생님 그동안 많은 작품을 남기셨는데 이것만은 소개할만한 작품이다. 하고 말씀하실만한 作品 두어가지 소개해 주시죠.

□ 엄 소개할만한 作品이랄것까지는 없읍니다만, 뭐 그동안 롯데호텔, 세종문화회관, 대한교육보험사옥을 했다고는 하지만... 학교로서는 소개할만한 것은 리틀·앤 쉘스학교, 그러니까 선화예술학교를 말 할 수 있겠읍니다. 또 하나는 남서울 컨트리·클럽 입니다. 이 두가지가 내 나름대로 괜찮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의 큰 건물들은 어떤 의미에서 돈만 가지고 열심히 하면 그런대로 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소개해드린 두곳은 내 個性과 哲学이 담긴 作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화예술학교는 韓國的인 정서가 깃들인 현대적인 학교다라고 생각합니다. 곧 강당이 준공되는데 학교강당만으로는 아깝고 자그마한 文化殿堂이라고 하는 편이...

□ 윤 일반인에게도 공개되겠죠?

□ 엄 그렇죠. 공개할겁니다. 그 무대라던가 그밖에 모든 것이 대단합니다. 한데 학교측에서 워싱턴에 있는 케네디 센터의 貴族的 분위기를 내려고 해서 한국적인 정서를 다소 빼앗겼읍니다. 아뭏든 모든 계획은 제가 했고, 나름대로 내부나 복도, 교실의 모듈 등은 나의 개성과 철학이 담긴 作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나이를 먹으니까 작품을 대하는 눈이 애매한 경지에서 확고한 경지로 되더군요.”

□ 윤 이제 환진갑 다 지나셨는데 요즘은 여가선용을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요?

□ 엄 우선 건강이 문제더군요. 몸이 생각을 따르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극성스럽게 일을 하지 않으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명예욕도, 돈에 대한 욕심도 다 버리고 또 공식적인 활동도 거의 안하고 있죠. 되도록이면 쉬고 편하게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아주 소극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作品에 대한 의욕은 오히려 젊었을때 보다 더 있지 않은가 생각돼요. 이제는 作品을 대하는 눈이 확고해진것을 느껴요. 옛날 젊었을 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고 애매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애매한 경지에서 확고한 경지로 되었다 이겁니다. 年輪이 준 지혜라고 할까... 내가 내 자신을 안다고 할까요. 그밖에는 가끔씩 골프를 치고 있습니다.

□ 윤 그러시다 보면 作品쪽으로 더 기우리시겠네요. 또 사무실을 운영하시려면 보조원 문제등도 신경을 쓰셔야 할텐데요.

□ 엄 네, 다소... 그러나 일을 따려고 뛰어 다니지는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보조원 문제테, 우리나라 풍토가 그래요. 5, 6년 지나면 내걸을 떠나요. 그 사람들이 나가면 소장도 되고 사장도 되는데 붙잡을 수도 없고, 사실은 한 10년이상 함께 있어야 내 뜻이 제대로 전달돼서 作品이 제대로 나올수 있는건데... 그런 저런 문제로 또 신경을 쓰지 않을수 없기도 하군요.

□ 윤 마지막으로 협회운영에 대해서 좋은 말씀 좀...

□ 엄 잘들 하고 계신데... 여러가지 일이 있겠읍니다만, 모두가 협조할 때 우리 스스로의 권익도 옹호되겠고 지위향상도 이루어 지는 거겠죠.

□ 윤 그렇죠. 그래서 선배님들께서 뒷전에만 계시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끌어 주시면 보다 나아질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무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안타까워요.

협회도 최근에 면모를 달리해서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고 있습니다. 긴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

